

미국 최대 친환경 빌딩 제품 전시회 “GREENBUILD 2010”

112개 국가에서 1,800개사 참가, 약 25,000명이 전시장을 방문

미국 최대 친환경 빌딩 관련 제품 전시회

미국 최대 친환경 빌딩 관련 전시회가 2010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시카고 벡코믹 플레이스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112개 국가에서 1,800개사 참가하였으며 25,000명이 전시장을 방문, 지난 2002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 약 5,000명이 증가한 사상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였다.

Green Bui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 Expo 2010은 The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이 주관하는 친환경 건축 자재 전문 전시회로, 기조 연설자로 전 국무장관인 Colin Powell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더하였다. Colin Powell은 기조연설에서 “미래 친환경 빌딩 산업에서 개개인의 리더십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McGraw-Hil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빌딩 산업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연간 약 5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시장 규모로는 약 7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환경 건설 시장은 전체 건설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에는 올해 보다 약 2배 정도 확대된 약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시장이다.

친환경 건설 시장 규모

연도	2008	2009	2010
시장 규모(US억 달러)	420	550	710

출처 : McGraw-Hill Construction's Green Outlook 2011

다양한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 전시

독일의 대형 업체인 Siemens 사는 빌딩 기술 솔루션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한국의 LG Hausys는 친환경 카운터 탑과 재생 원료를 활용해 생산한 의자와 테이블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대형 욕조, 변기 제조기업인 TOTO 사는 친환경 절수형 변기를 선보였으며 Nudura 사는 상업용 건물 시공 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인 스티로폼 내벽재를 선보였다.



다양한 판촉 활동 펼쳐

전시 업체들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iPad를 상품으로 내걸거나 화려하게 부스를 디자인 하는 등 활발한 판촉 활동을 펼쳤다. 특히 Serious Materials 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걸쳐 완성한 4.9m의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모형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Serious Materials 사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유리교체를 시행하였는데, 기존 유리를 떼어내어 그 중 96%를 재활용한 후, 총 6,514개의 유리를 새로 제작하여 빌딩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41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난방효과도 4배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한 재활용 유리는 태양 복사열도 기존보다 52% 정도 덜 흡수하여 여름에 냉방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고 홍보하였다.

풍력 터빈 제품

전시회 특성에 맞게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제품을 많이 출시하였다. 하니웰(Honeywell) 사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풍력 터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기존의 풍력 터빈을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설치할 경우 가장 큰 문제였던 소음과 무게 등을 크게 개선하였다. 하니웰 관계자는 이 제품은 풍력 터빈에 기



어가 없어 소음이 적고, 무게는 약 84kg 정도로 큰 보강공사 없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지붕위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 제품

이튼(Eaton) 사는 미쓰비시 자동차와 전기 충전기 사업 협력을 맺고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캐속 충전기는 20~30분 정도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용으로 개발되었다.



정보 교류 및 교육의 장인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교육과 세미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친환경 빌딩 산업의 주요 트렌드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친환경 빌딩 관련 법률 정보도 제공 하였다.

친환경 빌딩 인증인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인증 획득 방법 및 절차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었다.

2011년 "Greenbuild 2011"은 장소를 옮겨 캐나다 토론토에서 10월 4일부터 7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K](#)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Greenbuild International Conference Expo 2010
- 개최장소 :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
- 개최기간 : 2010. 11. 17~19
- 참가국수 : 112 개국
- 참가 기업수 : 1,800개사
- 참관객수 : 약 25,000명
- 홈페이지 : www.greenbuildexpo.org
- 전시분야 : 그린 건축 자재,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력, 풍력 관련 제품
- 전시 주기 : 연간